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시므온, 나오미 선교회 주관 예배입니다.

이번 주 수요집회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순서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세례 받길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세례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타임캡슐(백주년 기념) 안에 들어가면 좋을 것을 복도에 있는 게시판에 적어 주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 달력에 따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식 당 봉 사 : 이순정 오복순 오자영 박혜경b김수진b강성식 유순봉 박영희
 4/17,24식당봉사: 김금순 강순배 박영신 이소혜 김진경 장재영 최숙화
 설 거 지 봉 사 : 이수정 최재욱 최경미 김정우
 다음 주 설거지 : 안경아 이성경 조지연 박시내 최은미
 새 교 우 : 고은영(청) 민병성(5남) 이용숙(3여) 김세룡(2남)
 떡 대 접 : 이갑재 권사 (생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36.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함께
-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메마른 나뭇가지 끝에서 꽃망울 터지길 기다리듯, 주님께서는 우리의 존재가 꽃처럼 활짝 피어나길 기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이전보다 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에 미소를 만들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혼란과 혼동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거친 세상의 물결을 따라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 몰아치는 모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평온케 해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고요하고 잠잠한 마음으로, 그러나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위로의 말씀 사41:10 인도자
- ♣ 교 독 문 127. 사순절(4) 다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 대표기도 장영숙 전도사
- 응 답 송 찬양대
- 찬 양 312(통341).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다함께
- ♣ 성경봉독 I. 사53:2-8 이건화 선생
 II. 고전1:18-25 백혜숙 권사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 찬 양 찬양대
- 말 씀 I. 말없이 사랑하여라 김재흥 목사
 II. 십자가는 기호가 아니다 김기석 목사
- 거듭기도 다함께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박옥식 장영숙 손성현 안경아 김인걸 문영혜 강성식
 강순배 곽상준 최경미 김근종 정옥영 김윤수 박상호 김정애a김정애b
 김중수 이순정 김필순 김희진 박홍재 배삼순 권호진 정재정 정한구
 왕영순 최종원 임 영 정경례 이진영 한양미 방문성 박혜경 방 민
 방 준 조병무 송양진 오진훈 노순옥 고원영 양재성 임미심 한상균

월정헌금:

권혁순 박혜경 김승현 김수진 김지윤 김현영 정원석 김현주 박범희
 박미영 배부례 백성래 서정순 왕수명 이동천 이소순 이수정 배재경
 이유선 방극숙 이증자 김창경 장재영 김재영 하정석 이명희 황경순
 황원순 황의일 이현숙 황자순 이민범 조은나 조재현 차혜심 주경진
 이윤정 박두석 문홍일 노우중 이건식 신영신 LK 무명

감사헌금:

김필순 박병구 김정애 박창운 허정윤 박홍재 강순배 정수복 장미란
 허호범 박성실 박규석 박경선 김창근 이윤아 장묘심 무명9

녹색꿈헌금: 무명

생일감사헌금: 김진영

	장 혜 속	백 혜 속	장 혜 속	조 순 덕
	노 순 옥	정 경 례	이 준 림	배 부 례
	임 정 자	최 경 미	이 은 옥	이 재 문
	문 영 혜	이 명 희	김 명 순	박 정 속
	안 정 속	진 정 속	최 희 영	김 혜 권
	박 홍 재	곽 권 희	문 복 순	김 경 수
	박 효 선	허 정 윤	김 현 주	임 미 심
	이 순 정	김 금 순	유 영 남	이 순 정
	이 형 속	권 미 속	이 정 은	임 영 선
	안 흥 속	오 현 정	정 현 주	박 찬 정
	정 영 선	이 현 속	정 영 선	이 현 속
	이 영 란	박 미 영	박 미 영	이 영 란
	박 혜 경	조 향 미	임 창 선	심 상 속
	김 재 흥	오 차 영	교 회	교 회
	김 기 석	이 건 식	교 회	이 건 식

황홀한 국수

고영민

반죽을 누르면 국수틀에서 국수가 빠져나와
받쳐놓은 끓는 솥으로
가만히 들어가 / 국수가 익듯,

익은 국수를 커다란 소쿠리째 건져
철썩철썩, 찬물에 담갔다가 / 건져내듯,

손 큰 내 어머니가 한 손씩 국수를 동그랗게 말아
그릇에 얹전히 얹히고 / 뜨거운 국물을 붓듯, / 고명을 얹듯,

쫄깃쫄깃, 말랑말랑
그 매끄러운 국숫발을
허기진 누군가가 / 후루룩 빨아들이듯,

이마의 젖은 땀을 문지르고
허, 허 감탄사를 연발하며 국물을 다 들이키고 나서는
빈 그릇을 가만히 내려놓은
검은 손등으로 / 입가를 닦듯,

살다 갔으면 좋겠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찬양	새교우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십자가는 교회건물을 나타내는 단순한 기호가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강함을 간구하며 사십시오.	
다함께 :	아멘. 먼지 쌓인 유물을 바라보듯 무심히 십자가를 대하여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지 않고 몸이 지고 살겠습니다. 십자가 짐을 통해 그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맞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기도의 밤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공동기도	이정은 선생
	김기석 목사	조병무 장로	임주빈 집사

4월	영접위원	조병무 김훈동 박석희 유경순 조항미 오자영
	헌금위원	한상익 장혜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길들이기

오늘 이사 준비를 했다. 이사 날짜는 며칠 남았고 포장이사를 하기로 해서 크게 쌀 짐은 없지만 그래도 이사 갈 집에 들러 청소도 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맞추어 만든 소품들은 뜯어서 이사 갈 집에 맞춰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사 가기 전까지 만들 수 있는 것은 다시 만들고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은 이사 간 다음에 그 집에서 만들어야 한다.

이사를 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나도 했다. 왜냐하면 방은 두 개인데 책은 자꾸 늘어났다. 내 책이야 그만 사면되지만,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 사린이 책은 한참 더 사 주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넓고 방이 세 개인 구조를 갖춘 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가능하면 버티는 게 내 성격이라서 불편해도 견뎌볼 요량이었는데 아내가 이사할 집을 찾아냈다.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집과 같은 가격에 방은 하나 더 있는 집, 도심에서 벗어나 있지만 햇살이 잘 드는 집, 지은 지 좀 오래된 빌라가 아내가 찾아낸 전세 집이다. 며칠 뒤면 우리가 그 집으로 이사를 간다.

방이 하나 더 있고 공간도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는 조금 넓지만 오래된 집인데 그 집에 사셨던 할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해서 집안에 비린내가 가득했다. 거기다 힘이 부치셨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청소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다. 그러니 살림살이들이 온전한 것이 별로 없어서 도배와 페인트는 집주인이 해주기로 약속했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손을 봐서 살아야 한다.

사실 처음 그 집을 보고 왔을 때 나는 맘에 들지 않았다. 아내도 너무 지저분한 것이 맘에 걸렸는지 그 집으로 이사 가자고 힘껏 주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집을 잘 청소하고 손을 좀 보고 나면 살만한 집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하여 그 집을 전세 계약을 했다. 그리고 드나들면서 이곳저곳 눈길을 주고 손질을 하며 길을 들이고 있다.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낯설고 썰렁한 것이 정이 안 들것 같지만 곧 정이 들고 익숙해진다. 쓸고 닦고 고치면서 집과 사람 사이에 기운이 교류된다. 그리고 가구들이 들어가고 책이 들어가 자리를 잡으며 가전제품들이 제 자리를 찾는 등 우리 집 손때 묻은 살림살이가 자리

를 잡고 나면 차츰 차츰 그 집이 편안해 질 것이다.

어린왕자에게 자기 자신이 길들이 장미가 소중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길들이한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요, 꼭 필요한 것이리라. 비록 때가 되면 그것과 이별할 것이라 해도 지금 그 무엇을 길들이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삶에 의미와 활력을 준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길들이가 없다면 얼마나 삭막할 것인가. 관옥 선생님은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이제껏 여러 집에서 살아왔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니까. 지나간 집에 연연하지 않고 나중에 살게 될 집을 동경하지 않아야 지금 여기를 살 수 있다는 말씀이셨다.

일본의 대지진 쓰나미를 생각하면 슬프고 두렵다. 그 땅의 흔들림이 낳고 있는 결과들을 보면서 일본이 공포에 떨고 있고 세계 여기저기에 두려움이 번져가기도 한다. 그러나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살아있는 이들은 살아야 한다. 일상생활을 해야 한다. 다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마냥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지당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시인 김기림의 시에 나오는 나비는, 바다의 깊이를 모르기에 바다 물결 가까이 내려오면서도 도무지 무섭지가 않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모두 한치 앞을 모른다. 그걸 진심으로 인정하면 ‘지금 여기’를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재앙을 만난 이웃에게 성금도 보내야 하겠지만, 이사도 하고 집을 손볼 고민도 하면서 살아간다. 바라기는 만나는 모든 것들을 길들이 수 있었으면 한다. 더 오래도록 바라보고 부드럽게 바라보며 나는 너를 길들이고 너는 나를 길들이는 삶, 사물이든 사람이든 나는 너를 그렇게 만나며 살았으면 한다.

밤이 늦었다. 얼른 자고 내일 아침, 이사 갈 집을 길들이러 가야겠다.